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시험은 12월 3일(목)에 있습니다.
4. 이번 주 토요일(11/28) 청소담당은 키르키스탄 목장(신동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1/29) 주일간식담당은 로템 목장(정진숙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12월 13일
예배기도(2부)	신재준 집사	이정환 집사	조정석 집사	유종열 장로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헵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키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위형, 안성진, 추현희)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16장(통 356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선재준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28:10-1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바로 그곳에서’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  
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2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8:1-6 ‘주 안에 사는 이’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28)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지금은 조울 중입니다(2)

옷깃을 여미는 추위가 슬며시 찾아왔습니다. 입동이 지난 지 벌써 몇 주, 그다지 겨울이라 느끼질 못했는데 새삼 한기가 뻗속까지 스며드는 겨울입니다.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온통 세상이 뿌연 안개만큼 혼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모두에게 닥쳤습니다. 발생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는 수그러들지를 않습니다.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기승을 부려 전국적으로 산발적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겨울이면 경험했던 뿌연 매연처럼 탁한 피곤이 삶의 자리마다 고여 오는 민초들의 현실은 또 얼마나 아픈지. 요즘은 어딜 가든 ‘너무 힘들다’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우울한 자화상이기에 애써 웃음 지으며 외면하는 형세입니다.

어느 때보다 신뢰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만큼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말 한마디에 곧잘 상처받곤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어떤 것보다 칭찬과 긍정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헤아린 말 한마디가 단단한 생명을 살리는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불신의 마음이 들수록 남을 탓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맞닥뜨린 현실의 힘겨움을,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걱정하는 것보다 감사를 되새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엄밀히 말해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만들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 대신 그것이 사실이라는 내적 확신이 먼저 생길 기다립니다. 참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위로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어떤 이의 노랫말이 떠오릅니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울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우린 이 고난도 언젠가 지나갈 것을 믿으니까요.

Written by 허영진